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세계은행, 2010 · 2011년 중국 경제성장을 상향 조정

□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중국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,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2010년 경제성장률(GDP) 성장률을 당초 9.5%에서 10.0%로 상향 조정함.

-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을 당초 9.5%로 전망했으나, 수출 증대 및 내수경기 호조 등 양호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힘입어 기존 추정치보다 0.5%p 상향한 10.0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- 또한 2011년 경제성장률도 작년 말 전망치인 8.5%보다 0.2%p 상향 조정함으로써 내년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.

□ 이 보고서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 둔화 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관련 대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등이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 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함.

- 내년도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침체 시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대응정책에 따라 성장 감소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.
-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방정부의 재정악화,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,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중국경제 성장에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.
- 한편,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정부 목표치인 3.0%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겠지만, 내년도에는 농산물 등 식품가격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어 3%를 상회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약 3.3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
(신화사, 11/3)